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경제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제언

김 정 훈(원광대학교 교수)

현재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약60개에 이르며, 이들은 주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에 의해 공동사업과 ‘지역 요구에 부합하고 타 기관과 차별화된 센터 고유의 대표브랜드 사업을 개발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10여 개는 가정학을 배경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로서 전체의 16%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가정학 영역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서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법을 모색, 제안하고자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정학이 갖는 장점은 다른 어떤 학문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친숙하고 유용하며, 통합적으로 가족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성화를 이루는데는 다양한 접근과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족, 가정관리, 아동의 주류영역과 학과의 운영이나 전공에서의 뿌리에서 보다 친근하여 유리한 영역은 소비자학 영역으로의 특성화가 제안될 수 있다. 현재 소비자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지역의 소비자 단체들이다. 그런데 이들 우리나라의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피해 상담이 주 업무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학적 운영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소비 행태와 가계관리문제를 함께 교육할 수 있으며,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더구나 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서 가정학적 영역의 장점 또는 특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학적 시각에서 건강가정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있다. 둘째, 지원금에 비해 공동사업의 비중이 너무 크고, 특성화 프로그램의 평가 비중이 적어 다른 특성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셋째, 지난 수년간 가정학에서의 전문, 세분화 경향으로 가정학의 통합 접근 특성이 간과 내지 상실되었다. 넷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가정학 영역에서 가족학, 가정관리학 전공자들에 비해 타 전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부족하다.

현재 원광대학교와 함께하는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에 설치되어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2006),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2007), 아동돌보미지원사업(2007), 조손가족지원사업(2007)을 병행 수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경제교육을 특성화 사업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각각 4건(2006년, 2007년)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적으로 취약가정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시장경제사회에서는 취약가정일 수록 시장에서의 권리문제에서 불리하거나 가계 문제가 가족 문제화되는 경향이 있다.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의 어린이와 조부모, 장애아가정, 한 부모 가정의 부모-자녀는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극복해야할 중요한 교육대상이며, 합리적 가계관리를 통해 재정적 향상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한 그룹이다. 또한 이들은 가족 내외에서 재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소비 욕구와 가족들의 경제적 협력이 가족의 경제적 향상과 가족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가족 내에서의 재정적 의사소통은 일반 가정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가족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가정학자들에서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의 여러 단체들에서 실행하고 있는 경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시장경제의 시스템적 장점을 강조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제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경제개념에, 또 일부는 단순 지식이나 기술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가정학은 현실 적용 가능한 실용성을 중시하는 실용과학이며, 따라서 지식과 기술 뿐아니라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 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용돈교육과 가계이해 교육, 부모들에 대한 어린이 경제교육, 가족경제교육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 경제교육은 단순한 개념의 이해나 어린이 개인의 행동변화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즉 가정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정과 분리해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학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표 2>.

<표 1> 원광대학교와 함께하는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2006~2007)

	2006년	2007년
가정상담	이혼 전 후 상담	이혼 전 후 상담
	개인/가족상담	개인/가족상담
	집단상담	나에게 말해요 인터넷 중독예방상담
교육조사연구	행복은행장 아버지교육	행복은행장 아버지교육 행복한 결혼 바로알기
	1324 참 리더십 훈련 (내가 선택하는 직업)	1324 청소년교육 (양성평등) 경제나라 여행 I & III
	경제나라 여행I	은빛 화려한 외출을 꿈꾸며
	은빛 화려한 외출을 꿈꾸며 (튼튼한 노후 준비)	마음을 알면 자녀의 참모습이 보여요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예비부부 결혼준비교육	게임으로 여는 경제세상
가정문화홍보	사랑나눔 가족자원봉사대	사랑나눔 가족자원봉사대
	건강한 가정문화 전승 캠페인	건강가정 캠페인
	꿈을 키우는 아이들과 떠나는 문화여행	꿈을 키우는 아이들과 떠나는 문화여행 건강가정프로젝트
가족지원사업	Big Brother 사업; 세잎 한가정 프로그램	아동돌보미지원사업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Big Brother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부모자녀가 함께 만드는 행복 하모니 내 아이와 통하는 법
	부모자녀가 함께 만드는 행복 하모니	조손가족지 원사업 Big Brother 사업 마음이 통하는 우리 가족 내 안으로의 여행 애야 마실가자 경제나라 여행II
네트워크	전문, 자문위원회의, 네트워크 구축, 소식지/정보지 제작, 홈페이지 운영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방문교육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및 가정생활적응교육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
	결혼이민자 취업 준비교육	직업교육(비즈공예)
	익산시 행복나눔 운동회	가족교육사업(시어머니 교육)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학예발표회	네트워크 사업
	상담사업	결혼이민자 가족 어울림 한마당
	자녀보호사업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경제교육	결혼이민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프로그램 (예비남편 교육, 자조모임, 한국무용, 다문화사랑축제)	

<표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프로그램 영역	대 상	내 용	형 태	효 과	문제점	해결방안
자녀 경제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초, 중등 학생자녀를 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육의 필요성 · 경제교육의 실제적 상황 대처 · 자녀 용돈교육 	특강 2~3단위 워크샵	어린이 교육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부모를 교육함으로써 생활 속 경제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전문 강사의 필요성	가정대학의 소비자학 교수 및 연구원
어린이 용돈교육	초, 중등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일기 · 부모와 용돈계약서 및 고용계약서 쓰고 실천하기 · 용돈 기입장 쓰기 · 소비생활 이해 · 알뜰시장 	반별, 또는 학년 대상의 대규모 특강 가능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행동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교사의 적극적 참여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에게 가산점이 갈 수 있는 방안 (수상)/ 교사 경제교육/ 학생들에 대한 수상
가족 경제교육	초, 중등 학생자녀와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경제 이해 · 용돈계약서와 고용계약서 쓰기 · 알뜰시장 	2단위 이상의 워크샵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가족의 대화와 이해를 이끌 수 있다	부모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어린이 경제교육	초, 중등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돈관리 · 가계 이해 · 지역사회 이해 (경제 시민의 역할) 	캠프형, 놀토형 등 다양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경험을 통해 가치관과 태도 교육이 가능하다	전문 강사 필요 교육 대상들의 연령적 고려 필요	전문 강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경제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제언

양 세 정(상명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특성화프로그램으로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고,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교육프로그램 운용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영역의 가정학자들이 힘을 모아 건강한 가정을 위한 전문지식의 사회환원의 형태로 봉사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과정과 변화과정에서 시행부처의 잘못된 운용과 이에 따른 탄력적이지 못한 공통사업의 운용 부담 등의 이유로 다양한 영역의 가정학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한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의 실제 교육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으며, 경제교육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정보에 목마른 독자의 입장에서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정보를 포함하기를 기대했었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우선 원광대학에서 실시한 바 있는 4개의 경제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제목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실제 교육콘텐츠와 교육시행성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sample로 삼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표 2>에 나타난 경제교육프로그램 제안도 마찬가지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용적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이번 학회의 주요 목적이었던 만큼 프로그램 제안도 보다 구체적이었어야 했던 것 같다. 교육에 대한 제목의 나열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며, 제안프로그램 또한 보다 체계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제안프로그램 제안을 받아들여기도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미 잘 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체계 속에서 이런 주제들이 중요해서 뽑았다던가 하는 식의 프로그램 주제 추출의 당위성이 제공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는 경제교육프로그램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경제교육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현장교육과 제안교육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때 제기되는 이슈가 가정학자들이 용돈교육이나 재무관리를 다룰 때 이를 경제교육이라고 해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이는 곧 소비자학자는 가정에 밀착된 경제주체를 다루는 사람인가, 소비자학은 경제학의 한 부분인가 하는 이슈까지도 켜를 같이 해서 생각해야 하는 중요 이슈라 생각된다. 저자가 제시한 주제들은 모두 이미 소비자학영역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는 인증된 주제들로 사료된다. 가정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